

영월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 활성화 방안

박기복

초 록

강원도 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의 활성화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여야 하며 이는 대내외적 변화에 상응하는 새로운 전략적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말한다. 기존의 천혜의 환경적 속성을 바탕으로 하여 전략과 더불어 지속 가능 모델로 자리매김을 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작금의 경제적 불황과 기후 변화의 영향은 성공적인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을 구축함에 있어서 더 이상의 선택적 요소가 아니다. 또한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경제와 사회문화적 파급력을 집성하려면 공간의 다양성과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절대적으로 병행하여야만 한다.

지리적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영월은 많은 문화예술콘텐츠 공간들을 이미 갖추었고 다른 지역과 다르게 발전적 전략 구성을 집행하고 있다.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의 중요성을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판단되어지며 본인은 연구의 범위를 영월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영월 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을 진단하고 발전을 위한 모델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영월 지역 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의 경제적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사회 문화적 영향력을 창출할 것이며 나아가 지역 문화의 현대화와 이미지 개선,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등을 형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방법적으로 세계화를 지향함과 동시에 지역의 문화 예술적 토대를 근거로 하여 영월의 '지붕없는 박물관도시,영월' 프로젝트 방향을 세방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거시적인 세계화 지향의 발전 모델을 수립하기 이전에 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특화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구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영월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은 도·시민에게 삶의 장소로서 직결되기 때문이다.

Key Word :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 세방화, 영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I. 서론

본고 주제는 기존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 전략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있다. 즉 내부적 특성화된 기존 경쟁 요소를 더욱 육성하고 외부적으로는 지속적 문화예술 콘

텐츠들을 유입,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미발전된 지역을 개선,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 조성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고자 강원 지역에서 사례를 영월로 국한하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제적 성공적 사례인 스페인의 빌바오 구겐하임 뮤지엄(Guggenheim Bilbao Museum)을 통한 빌바오시의 경제적 성과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약 4,136개 일자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약8억1천6백만 유로의 수익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테러와 과거 낙후된 산업현장의 도시 이미지를 선진 문화도시로 전환하는 성공모델로 유명하다.

강원지역도 문화관광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적 성과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을 구축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강원도 도내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이 현재 (2007년 통계) 40여 개의 사립 박물관 및 국립 공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난맥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연구는 강원 지역 궁극의 경제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고 국제적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의 중심으로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을 모범 사례를 구축하는 것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 문화도시의 구축의 유형을 조명래의 분석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첫째는 창조적 문화예술을 표방하는 문화도시의 형성에는 중앙 정부 차원의 특정지역을 문화 중심으로 조성하는 문화중심도시 유형과 둘째 지자체 차원에서 각종 장소 마케팅을 통한 문화도시 형성으로 전환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1)이 연구에서는 두 번째 유형을 전제하고자 한다.

지역발전 정책 수립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참여정부의 지역 균형발전과는 다르게 현재의 정부

는 지역균형에서 지역특화발전으로 전환된 시점이며, 이는 지자체의 노력이 더욱 지역 특성화된 콘텐츠개발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영월지역은 전략적으로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을 특성화시켜 지역경제 및 문화 전반의 대내외적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5월 세계 국립 대학 총장 문화예술 교육 심포지움(UCAWE)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그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전략화하고 있다.2) 이는 국내의 지역간 비교를 넘어 지역의 국제성을 구축, 비교하는 관점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지적 관점이 아닌 국제적 관점에서 영월 지역을 인식하고 평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의 재구성은 지역 자체의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국제적 문화예술 지역으로써 지역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창조 도시의 방향을 전략적으로 수립되어야만 한다.

II. 본 론

1.연구배경

기존의 '지붕없는 박물관 도시, 영월' 프로젝트는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국제화 모색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의 혼합 개념인 세방화

2) http://ucawe.org/index/sub_test/sub_B1.html?PHPSESSID=d158f4c4802164376b1c331b8c690fa5

1) 조명래, 「문화 도시만들기의 문제점과 특성화 전략」 『NGO연구』 제5권 제1호 단국대, P60~61 "현재 문화도시 혹은 그와 유사한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무수하다. '서울북합문화도시',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경주세계역사문화 도시', '전주전통문화도시', '부산영상문화도시', '순천문화도시', '무주청정 문화도시', '부천문화도시', '익산친환경역사문화도시', '포항과학문화도시', '군포교통문화도시', '영월생태문화도시', '강진역사문화도시', '춘천 문화도시', '파주출판문화도시' 등이 있다."

(Glocalization)와 세계적 경제 위기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른 녹색 성장 중요성에서 다시 규명되어야 한다.

1) 세방화 (glocalization)

21세기의 전세계의 급변 양상은 과거 산업사회 기반의 패러다임과 달리 시민중심사회가 정착되었고 또한 급속한 정보·교통·통신 기술발달은 지식산업기반 경제구조가 구축되고 고도정보화와 함께 또한 세계화(globalization)지향 중심에서 세방화(世方化) 즉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중심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³⁾

이는 중앙정부 기반으로 국가 대 국가 규모 관계중심에서 개별적 지역도시와 일반 시민들 역할 중심의 패러다임이 새로운 발전 기반이 되고 있다. 급속한 세방화의 진전은 지구촌의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 고령화, 다원화 양상으로 집약되며 그 구성원의 삶의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듯이 일상화 된 합성어 '세방화'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창의적 사회 구성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2) 글로벌 경제위기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로 인한 경제 악순환속에서 당분간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률이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이 시점에서 문화예술 콘텐츠의 산업적 역할이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로써 과거 1930년대 경제 대공

황 상황속의 미국 정부의 뉴딜 정책 예를 들어 볼 수 있다. 당시 미국 정부는 SOC(사회 간접자본) 등 사회기간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 경기회복에 전력을 투자함과 동시에 한편으로 미술은행, 벽화운동 같은 공공 미술(Public Art)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책도 집행했다. 이것은 경기회복 후 미국이 경제입국과 함께 문화대국으로써 우수한 문화예술 콘텐츠 구성의 입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회위복의 전환점이 되었다.

현재 21세기는 과거 제조업 중심산업 체제에서 발전한 지식정보산업사회로 진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이 작금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문화예술 산업이 지역 경제 침체 극복과 고용창출 등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주목해야 하며 이는 제조업, 건설업 중심의 경제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구축되어야 한다.

3) 기후변화와 녹색 성장

화석연료 사용증가로 지구 온난화가 초래되고, 지구 전역에서 기상재해와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관광산업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구 전체 배출량의 약 5% 차지⁴⁾ 하고 있으며 영월도 지역경제에서 관광 중심의 서비스산업 비중이 증가추세로 탄소배출량 부담이 적지 않다. 국가적으로도 또한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6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6위 수준이며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1위를 하고 있는 만

3) <http://www.imf.org/external/np/exr/ib/2008/053008.htm>

4) 김성진, 김윤영 「관광레저도시 정책방향 연구」 『정책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큼 생태 환경보존에 걸 맞는 문화예술콘텐츠 관련 공간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어 영월은 전반적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 구축에 녹색 문화예술 도시와 녹색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전략 기본계획수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단위의 중요성에 입각한 세방화 지향과 녹색 성장의 친환경적 지역생활 문화예술 콘텐츠 기반 조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환경의 문제는 더 이상의 고려 사항이 아닌 필수 조건이다. 영월과 같은 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맞물려 있는 지역으로써 무조건적인 선 개발을 통한 후속 조치로써 문화예술 콘텐츠 구성을 채우는 방식은 더 이상 전략적으로 콘텐츠 공간운영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세계적 경제 난국을 해결해 나갈 지역의 전략을 추진과제로 적극적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다.

2. 영월지역의 지리적·사회문화적 개관

영월은 총면적의 85%가 산지로 강원 남부에 위치한 자연자원과 단종의 장릉 등이 있는 문화유산의 고장이다. 그러나 영월의 슬로건이 'Young World영월'⁵⁾ 로써 젊음을 표방을 하고 있음에도 기타 전형적 농촌사회 구조의 지역과 마찬가지로 매년 농가수와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산간지역 영월은 교통여건, 물류비용, 새로운 기술인력 확보 측면에서 산업기반 구축이 어려웠고 더욱이 '폐광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한 강원남부 폐광지역⁶⁾을 통한 개발에서도 영월은 폐광지역진흥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에도 불구하고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관광개발에서 상당히 소외되었다.

그러나 개발의 기회를 잃은 영월은 지역의 내, 외부로부터 유입된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의 자연스러운 증가로 인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으며 전화위복으로써 본격적인 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특성화된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을 기반으로 관광 문화 콘텐츠요소 개발을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되었다.

3. 영월의 문화예술 콘텐츠형성을 위한 추진 전제조건

'지붕없는 박물관 도시, 영월' 프로젝트는 경제적, 사회 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 첫째, 경제적으로 지역사회에 고용창출, 소득증대 등을 들 수 있고 둘째,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지역문화의 현대화와 지역사회의 이미지 개선, 편의 공간 개선 등을 통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측면으로 환경적 영향을 꼽을 수 있다. 즉 '개발' 개념에는 필수적으로 지역 환경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개발로써 자연 생태자원의 관리,

5) 윤상현, 「강원남부 폐광지역 관광개발 과정상의 갈등 분석」 경기대 대학원 여가관광개발학과 2005 강원남부 폐광지역(폐광지역진흥지구: 강원도의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등 4개 시·군 전체면적의 17.7%에 해당하는 678.4 km²)은 석탄생산이라는 단일 기능을 수행하던 공간 중 영월은 4개 시·군의 전체 면적의 21%인 240.7 평방Km를 차지하고 있다.

5) <http://www.ywtour.go.kr/kor/>

보존 계기와 생활 환경개선 효과가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환경을 소재로 단순 개발하는 관광 산업과는 달리 문화콘텐츠 산업은 개발에 대한 중앙 부처간 협력체계 미흡, 지자체의 이해 부족, 단기간의 성과 우선주의 등을 통해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시행착오가 돌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문제점을 영월의 새로운 문화콘텐츠 공간구축의 진행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 개발을 통한 영월의 가치 창출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지자체의 지원은 최대, 간섭은 최소화해야 한다. 즉 정치적, 인위적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 개발의 '도구적'인 부양책은 문화예술의 속성상 자연 발생적 진화하고 발전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즉 관 주도 개입의 최소화와 그에 따른 역할 분담이 전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을 창조적 산업(Creative Industry)으로 분류하는 영국은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⁷⁾이라는 원칙하에 성공적으로 문화예술을 운영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월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의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인프라 조성 지원 등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 마련하여 광역 지자체 경제권 발전계획과 연계하는 영월 중심의 벨트 구축하는 종합발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신성희의 논문⁸⁾과 2005년도 문화산업 통계 따르면 창조적 계급에 속하는 고소득, 첨단 IT 계열 직군 문화산업 전문직 종사자 등의 분포도가 영월을 포함한 강원지역은 매우 낮게 분석되고 있다. 창조적 계급군이 절대적으로 중앙에 집중 분포하고 있으므로 영월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외부적으로 유입되는 문화예술인의 적극적 유치를 고려하는 문화예술 콘텐츠공간 설립이 필요하다.

즉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층적이고 복합기능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지역 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R. Florida)의 분류에 따른 창조계급(creative class)⁹⁾ 사회계층의 유입 즉 지속적인 창조적 요인을 위한 장소 개발전략은 중요한 발전적 요건이다. 즉 창조적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계층을 확보위해 구체적 여건과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소설가 이외수의 '화천 감성마을'이 있고, 선진 외국의 수많은 지역의 예술인 마을(Artist Residency Program)이 그 성공적 사례이며 또한 영국 웨일즈의 시골마을 헤이온와이(Hay on Wye)가 세계적 명소로서의 성공은 단 한 사람의 창조적 계층인 리처드 부스(Richard Booth)라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하향식(top-down)방식의 수직적 조직 구조 중심과 상향식(Bottom-up)방식의 인력 중심의 유연성을 바탕

7)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0178&yy=2008
영어 사용권에서 주로 선택되는 모델로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예술위원회(arts council)에 의한 문화예술정책의 집행이다. 이러한 기관은 정부의 '팔(arm)'로서 준정부적 기관의 성격을 띠지만 정부가 '팔길이(arm's length)' 만큼의 거리를 두고 이들 기관의 운영에는 간섭을 하지 않음에 따라 자율권을 보장받는다.

8) 신성희, 「혁신도시의 장소구축과 도시 이미지」 “혁신도시의 도시이미지 및 상징경관”심포지움, 대한지리학회, 서울대학교, 2007

9) Florida, R. Creative Class. 이길태(역) 「창조적변화를 주도하는사람들」 전자신문사, 2002.

으로 '문화적 바이러스' 인자를 전파할 수 있는 창조적 계급 인적확보가 중요하다.

4. 영월지역 문화콘텐츠 개발 활성화 방안

지속적인 기대 관람자를 창출, 즉 수용 창출을 하기 위해 영월지역 박물관·미술관 등의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의 지속적 소프트웨어 개발, 즉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병행하여야만 한다.

1) 영월지역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 특성화

첫째로 문화예술로 특성화 된 박물관·미술관 강화와 함께 영월지역 구체적 상황에 맞는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의 특성화를 구축해야 한다. 그 어려움을 이영준은 <부산시립미술관 소장품 현황>에서 한국에서 미술관을 차별화 되게 특색 있는 운영방침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여겨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지역 미술관의 특성화가 배타성을 떨 수밖에 없음¹⁰⁾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 특성화를 통하여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는 등 영월의 문화예술 기관 및 공간의 전략으로서 안고 가야 할 장점으로 보아야 한다.

영월의 정체성 확립과 경제성 확보를 위한 특성화 전략은 '지붕없는 박물관도시, 영월'의 바람

직한 운영주체와 소장작품 및 전시, 나아가서 운영 방침 구성을 통한 수익성을 담보하거나 지역 주민의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매우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영월지역은 인적·물적 구성을 지역 기반을 강조한 문화예술 콘텐츠 정체성 특성화는 매우 중요한 전략임은 분명하다.

나아가서 지역적 정체성을 넘어 국제적 인적·물적 구성 운영한다면 태생적 지역 공공 문화예술 공간으로써의 지역적인 면을 극복할 수 있다. 즉 지역의 공적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이 갖는 딜레마를 장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월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을 통한 콘텐츠 특성화 관점을 구술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 콘텐츠특성화를 위하여 인적 구성상 지역성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즉 인적 구성상 지역성(Locality)과 함께 큰 안목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의 미래 지향적 운영을 위한 콘텐츠 특성화를 위해 인적구성의 지역성의 한계를 넘어야만 한다.

둘째, 물적구성 즉 소장품을 비롯한 전시물의 문화예술 콘텐츠 특성화를 구축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소장품 구성의 특화는 바로 관람객의 수와 상관계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예술적, 대중적 평가를 받은 작품을 수장 구성한다는 것이 예산상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박수근 미술관을 보아도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¹¹⁾이러한 공공 문화예술

10) <http://blog.daum.net/memolee/16106468>

"한국의 국·공립미술관은 미술관의 공공적 성격만을 강조하면서 차별화 된 운영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인 운영에 있어 근대와 현대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어렵고 특색있는 운영방침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여겨진다. 미술관의 성격이 뚜렷하다는 것은 단적으로 말한다면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가능하다. 가령 근대미술을 지향하면 현대를 버려야 하고, 지역을 위주로 운영하면 타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긴 국·공립미술관은 그 성격을 차별화하기가 어렵다."

11) 김규호, 「도내 박물관미술관의 활성화 기대」[강원시평](2007-2-6 기사) "...대부분 공립 박물관들이 건립 당시의 국고지원으로 인한 의존적인 출발에 비한다면 운영에는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 박물관의 수입이라 하면 관람료와 기념품 판매 수익금, 그리고 또 있다면 복권기금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수익금을 다 합친다 해도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박물관은 도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콘텐츠 공간의 물적 소장품인 콘텐츠 특성화의 어려움을 독일 칼스 루에의 ZKM(Zentrum für Kunst und Medien technologie)과 영국의 테이트 갤러리(Tate Gallery)의 세인트 아이브스(St.Ives) 구성을 전략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다. 위의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입지적 측면에서 작은 지방에 입지한 점, 소장품의 신 미디어 아트 중심, 연구 중심, 친환경적 건축구성 등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으로써 성공적 사례를 보인 점은 빌바오의 구프하임 미술관과 버금간다. 이는 충분히 영월의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의 특성화를 위하여 충분한 연구대상이라는 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작가 발굴과 연구를 통한 콘텐츠 개발도 중요하다. 지역 중심의 컬렉션과 전시는 지역 정신적 정체성을 함양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2)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 교육프로그램 특성화 전략 개발

기존의 영월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의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에 대하여 지자체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각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은 '지붕없는 박물관도시, 영월'의 취지에 근거하여 그 본질적 기능과 개념을 명확히 파악하고 목표와 설립취지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학습의 장으로써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 환경을 분석하고 타 지역의 성공사례 및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조사하여 경쟁 상대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야 한다.

2-1) 영월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교육 기능강화

영월의 지역 수용자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 하여야 한다. 영월의 지자체와 공간 운영 당사자는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관점에서의 지역 특성과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수용하기 위해 각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의 설립 철학, 특성, 소장품과 전시를 전적으로 강화하여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가 요구되며 이는 교육 전문 인력의 제도적 정착을 필요로 한다.

2-2) 기존 공교육 연계 차별화된 영월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 교육 강화

일회성 위주의 체험학습에서 벗어나 영월 지역 문화예술 정체성을 위해 요구되는 차별화된 영월의 문화예술 공간 콘텐츠 교육은 적극적으로 미적 문화예술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탐색 과정 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사항은 현장 적용과 지속적인 진행이다. 지역 학교 교육과정에 맞는 체험과 활동을 지역 교육자 중심으로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집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능한 기존 교육기관과의 연계해서 문화예술 콘텐츠 교육의 최대한의 실천과 평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각각의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 사이 연계성 개발, 프로젝트 연계 교육 (Project Based Learning) 프로그램, 영월 교육기관과 연계한 문화예술 콘텐츠 연구 프로젝트 개발 등은 일반화가 가능한 프로그램으

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영월의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 특성화 프로그램개발 제안 - 노령층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사례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 활성화를 통해 형성되는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주는 영향력을 문화복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이 지역 사회·문화적 문제에 적극적 관련된 것으로 이해한다. 즉 영월지역이 갖는 지역 사회적 공공문화예술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적극 갖추어야 한다. 이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갈수록 심각해 지는 몇 가지 문제 중 초고령화 사회 구조에 따른 지역 농촌의 사회적 문제, 장애인, 해외 이주민의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하는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 프로그램 구성도 필요하다.

그 중 노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예로 들고자 한다. 영월 문화예술 콘텐츠공간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대상으로서의 노령층은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노령화 현상¹²⁾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여가선용과 의료적 차원의 사회교육프로그램이 부분적으로 복지관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문화예술의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를 성공적 수행을 가능하도록 먼저 영월지역 고령화 현상을 철저히 연구 확인하고 지역 문화예술공간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다층

적이고 특수한 문화예술 콘텐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노령층은 인구 구성 비율의 팽창, 교육수준의 향상, 실질적 경제 활동역할 등 급속한 그 계층의 속성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 소비층으로써 노령층의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과의 관계를 결합하는 시도는 매우 미흡하다. 특히 앞서 언급된 플로리다의 창조계급이 수도권의 인구 집중, 주택문제, 교통문제,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탈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지역은 농업 생산 공간에서 정주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노령화된 창조계급의 이주성을 유도할 전략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다른 서비스산업이나 제조업에 종사했던 산업 인력의 노령층과 달리 문화예술에 종사한 노령층은 문화예술 산업의 특성상 완속의 경지로서 왕성한 활동시점이 매우 다른 특성이다. 이러한 노령화된 창조적 계급의 적극적 유입을 위해 기존의 하드웨어중심의 노령층 복지차원을 벗어나 문화예술 중심 노령층복지로의 전환해야 한다. 영월의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령화된 계층의 심도있는 연구는 지역의 복지와 공간의 경제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제2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평생 교육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IV. 결 론

세계화를 지향하는 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은 그 발전의 토대를 세방화적 패러다임 전환으로 더 구체적으로 개발 할 수 있다. 또한 다양

12) <http://www.atbiz.or.kr/servlet>

성진근 「한국농업의 비전과 과제」 한국농업경영포럼 P.6
농촌인구30년만(1975~2005)에 절만 수준 감소: 1975년17,910천명 → 2005년8,764천명 노령층인구(60세 이상)적증:7.9% → 40.3%

성, 자연 친화적 녹색성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화를 위해서 영월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의
 운영방안들은 지속가능한 특성화를 전제하여야
 한다.

영월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은 도·시민에
 게 삶의 장소로 직결된다. 그러므로 거시적 시점의
 프로그램 발전 모델을 수립 전에 지역 주민등 그
 구성원의 문화예술적 수용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특성화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지역성을
 중시하는 세방화된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의 활성
 화를 위해 '지붕없는 박물관 도시, 영월'프로젝트
 는 전환적인 재구성이 이루어져 가야 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재구성을 위해서 환경
 과 경제적, 사회 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영향력을
 연구하여야 하며, 나아가서 그 지역의 다양성 문화
 적 특성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전제가 충
 족된다면 경제적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사회 문화
 적 영향으로 문화의 현대화와 이미지 개선, 전인
 삶의 질 향상 등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영월지역의 지리적,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고 문
 화예술 콘텐츠 공간의 다층적 수요를 파악하고 영
 월 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의 교
 육 프로그램 등을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영월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을 활용하여 다
 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역 특성화하여 발전시
 켜야 하며 또한 고령층의 특성화된 문화예술 콘텐
 츠 공간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성공적으로 영월의 문화예술콘텐츠 공간
 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자치단체의 유기적
 인 협조체제에서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세계

적 성공사례를 연구하여 모델 구축의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는 영월의 지역 경제 활성
 화를 넘어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에도
 많은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임상오, 이보아, 전영철, 『박물관 창조도시 영월』
 도서출판 해남,2007

조명래, 「문화 도시만들기의 문제점과 특성화 전
 략」 『NGO연구』.제5권, 제1호 단국대,
 P60

김호균, 「문화정책 집행 영향 요인과 집행 효과성
 과의 관계 분석」 『정책분석 평가 학회
 보』 제17권 제1호: 167~192

윤상현, 「강원남부 폐광지역 관광개발 과정상의
 갈등 분석」,경기대 대학원, 여가관광개발
 학과, 석사논문 2005

신성희, 「혁신도시의장소구축과도시이미지 : 변화
 를주도하는'사람유치', 그들이 모여드는
 '장소구축'을 위한 "창조도시론"의
 시사점」 심포지움, 『대한지리학회』,서
 울대학교,2007

김성진,김윤영 「관광레저도시 정책방향 연구」
 『정책과제』,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

정수환, 「에코뮤지엄을 통한 지역활성화계획」 서
 울대학교환경대학원 석사논문,2005

김규호, 「도내박물관미술관의활성화기대」『강원
 시평』,(2007-2-6 기사)

Florida. R. Creative Class. 이길태(역) 「창조적변

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전자신문사,
2002.

<http://www.atbiz.or.kr/servlet>

<http://blog.daum.net/memolee/16106468>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0178&yy=2008

<http://www.ywtour.go.kr/kor>

<http://kilsp.jinbo.net/colloquium/col46.html>

<http://www.imf.org/external/np/exr/ib/2008/053008.htm>

Abstract

Study of the Reactivation for Art & Culture Content Space Centering to Local Area, Yeongwol

Park, ki bok

The reactivation for Art & Culture Content Space in Gangwon province need new turning point according to new approach with internal and external change.

That should be established in sustainable possibility model with preexisted natural advantage instead of economical depression and global warming of in these days. That is not a choice to get a successful construction of art & culture content space in Gangwon province.

Throughout of reactivation of art & culture content space in Gangwon province, this proposal should go on with diversity of culture and concrete art & culture educational program absolutely to get a goal in regional economical success and social good influence.

Already Yeongwol region had lots of art & cultural spaces and developmental strategy compared with other regions in decade. In these points, I choose this region and would like to research Yeongwol region in limit.

Thus I would examine and study about art & culture content space in Yeongwol region. And I will concretely suggest that this proposal is composed with economical creating employment and incoming.

The reactivation for Art & Culture Content Space in Yeongwol will build up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to this region to get a new modern cultural images and improvement of common life of regional people by and large.

In the way of the process to globalization, this reactivation project for Art & Culture Content Space in Yeongwol should go on the base of regional culture background as a mean of glocalization paradigm strategically.

Ahead of developing model for globalization in macroscopic view point, we have to research the demend of reginal situation of cultural content and build up its own strength points. Because Art & Culture Content Space in Yeonwol is the place of people in Yeongwol directly as itself.

And managing plans of reactivation of art & culture content space in Yeongwol should build up with diversty of culture and environmental circumstances.

박기복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 교수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 영상바이오관 308호

Tel : 033-250-8755

parkkibog@kangwon.ac.kr